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1월 24일(금)
(음력 2019년 12월 30일)

Пятница
24 января 2020г.
№ 3(11687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월 25일은 음력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지난 19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가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음력 설맞이>행사를 펼쳤다.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트루트네브 대통령 전권대표와
코즐로브 장관, 직위 유지

1월 21일 저녁 늦게야 러시아 연방 정부의 새로운 조직 개편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극동연방구 감독들의 인사이동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유리 트루트네브는 부총리 임명에 대한 령에 따라 극동 연방구 대통령 전권대표직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7년째 러시아 정부 부총리 겸 극동연방부 대통령 전권대표직을 맡아 극동지역을 감독한다.

북극 및 극동지역 개발부 장관직은 알렉산드르 코즐로브가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그는 젊은 공직자로서 아무르주 주지사직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쳐 2018년에 장관직에 임명되었다. 대규모 지방 정부조직 개편과 헌법 개혁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 정부의 전체 구성은 과감하게 교체되었다.

사할린의 한인회들, 음력설 맞이

1월 25일은 음력설이다. 사할린주 한인협회를 비롯 현지 한인들을 위주로 하는 올해 음력설 행사는 우글레고르스크, 샤흐초르스크, 마카로브, 크라스노고로스크, 네웰스크 등 한인회는 1월 25일, 홈스크에는 24일 개최한다고 전해졌다. 아나와 한인회는 어린이창작회관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종이접기, 한글쓰기, 김밥 만들기, 민속 놀이 체험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나와에서도 25일 행사를 진행한다.

친애하는 여러분!

러시아 대학생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날은 활발하고, 목적을 향해 전진하며 재능을 지닌 사람들의 명절입니다. 대학생과 대학 졸업생들은 국가 주요 자산 중 하나이며 러시아의 미래와 지역 사회경제의 발전의 성과가 많은 점에서 그들의 자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 및 중등 전문교육을 현대화 하는 문제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할린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할린 지역에는 5개 대학과 13개 전문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총 17천여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고도의 전문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대단히 높은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들이 사할린 지역 주요 대학에서 일고 있습니다. 바로 사할린국립대학이 지난해 설립 70주년을 기념

하게 되어 지역 정부의 지도부와 공동으로 사할린국립대학이 대학 기반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 캠퍼스 건설 기획 설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올해 러시아 아카데미와 대학과의 협력에 대한 협약 체결에 따라 학술적 교류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채용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가장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주들과 협력하고 목표로 삼은 사업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대학생 여러분에게 번영과 학업의 성취와 새로운 성과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대학생 여러분,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기자회견: 가정 지원부터 공항 공사 문제까지

지난 20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주민속창작센터 대강당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실 이 기자회견은 1월 13일 러시아에서 기념하는 출판일과 관련해 진행하려고 했는데 주지사의 모스크바 출장으로 늦어졌다.

<OTB>에서 생방송된 기자회견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이에 사할린주의 주요 언론매체, 지방 언론사와 방송 대표, 주정부와 주두마 공식 인사가 참석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첫 40분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연례 국정 연설에서 따온 과제, 사할린주의 경제발전 관련 사업, 특히 사회복지지원 정책과 사업의 중점을 설명하고 1시간 반 동안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에 자세하게 답변했다.

주지사가 발표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문제다. 특히 출산 장려와 관련된 지원책으로 산모 나이와 가족 수익과 관계없이 첫 아이가 생긴 모든 가정에는 15만 루블리의 일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에는 이와 같은 지원금을 19-25세의 산모들만이 받을 수 있었다.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일시 지원금으로 25만 루블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3-7세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 가정 중 매월 8000루블리 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정은 50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마렌코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공항 공사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했다. 공항은 2020년에 완공 계획이었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을 극동에서 주요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검토하고 최신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공항은 2021년에 준공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활주로 공사에 연방예산에서 130억 루블리, 주예산에서는 10억 루블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극동의 모든 항공노선을 운항할 새 항공사를 설립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이에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의 항공사 <아브로라>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주지사는 사할린 정부가 의료와 보건 사업, 주택 공사, 스포츠, 투자, <고르니 위스두흐>스키장, 쿨릴 지원 프로젝트, 국제교류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할린의 모든 지방을 재방문하여 주민들과의 만나 현지 지도자들의 보고를 듣고 싶다는 표명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수 언론인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크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전하려고 사할린에 왔습니다

김운덕 할아버지 묘소 찾아

새고려신문사 기자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전달 대표단과 항상 함께 지방을 방문하고 취재한다. 올해는 신문 마감 등 여러 사정으로 지방 일정을 함께 하지 못 했지만 중요한 일정 하나를 함께 했다.

지난 19일(일) 이른 아침, 달력 전달 방문단(KIN의 배덕호 대표, 최상구 사무국장, 구태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변화지인 팀장, 김도희 <이스크라21> 팀장, 김민수 극단 달오름 대표, 김지연 사진작가)와 동행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 공동묘지로 출발했다. 그리고 고 김운덕 옹의 묘소를 찾았다.

2018년 10월에 향년 95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김운덕 할아버님은 당시 아버지 대신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어 탄광에서 일하셨다. 이후 모국에서는 사망처리가 되었다. 한국과 길이 열리면서 한국에서 호적정정을 하려했으나 여러 문제로 정정이 어려웠다. 이 잘못된 호적 정정을 위해 한국의 조영관 변호사가 도움을 주어 소송을 제기하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판결은 김운덕 할아버님이 별세하신 지 한 달이 지나서 나오게 되었다.

이번에 김지연 사진작가가 고 김운덕 할아버님의 고향 옛집 옆의 흙을 조영관 변호사(사할린한인들에 대한 조영관 변호사의 글 7면에 게재.-기자주)에게서 받고 사할린으로 가져왔다.

아침이라 추웠다. 눈에 빠지면서 한 발 한 발 김 할아버님의 묘소를 찾았다. 겨울이라 자녀들이 비닐로 덮은 비석에 새겨진 김 할아버님의 모습이 보였다. 모두 묵념을 올리고 김 할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던 날, 함께 했던 나는 할아버님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다.

최상구 사무국장은 술과 안주를 올리고 배덕호 대표는 김운덕 할아버님 고향의 흙을 뿌렸다. 남자들은 모두가 절을 올렸다. 고향의 채취와 함께 평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한다.

(배순신 기자)



KIN(KIN)은 재외동포들과 연대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단체

지난 1월 15일-22일 7박8일 일정으로 사할린 동포들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전달하기 위해 KIN(지구촌동포연대) 관계자와 여러 단체 대표 6명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KIN의 배덕호 공동대표와 최상구 사무국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사할린 한인들은 KIN단체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단체인지 상기시켰으면 합니다.

배덕호 대표: 1999년 창립한 KIN(KIN)은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재외동포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외동포법 개정투쟁, 재외동포영화제, 우토모마를 살리기운동 등 재일동포관련 활동, 사할린 희망캠페인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KIN이 사할린 한인 관련 활동을 시작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사할린 동포 관련 활동도 간단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상구 사무국장: 2004년 재외동포 NGO대회에 이수진 이산가족회 회장의 참석을 계기로 사할린 한인 문제를 접하고, 2006년 첫 방문 이후 매년 사할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할린 한인 역사회복을 위한 워크숍 개최, 빅코브 1세 지원,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 등을 벌여왔고, 한인 구슬기



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YTN, KBS, SBS 등 사할린 한인 관련 프로그램 기획에 자문과 자료제공 등을 통해 사할린 동포를 알리는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KIN(KIN)에게 있어 사할린은 무엇입니까?

배 대표: 일제 강점기와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동포들의 삶이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그런 아픔을 이겨낸 자랑스런 동포들이 있는 곳입니다.

-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이미 7년째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제작 사업을 해오고 있고 이 달력을 전달하기 위해 해마다 사할린의 여러 지방을 다니는데 이번 방문은 어떠셨어요?

최 사무국장: 이번 방문에는 스미르니히 한인회분들과 처음 만났습니다. 16개 지역한인회를 모두 방문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위스톡,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히, 마카로브, 시네고르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홀스크 등을 방문했습니다. 1세분들의 상황, 역사보존을 위한 일들에 대해 의견들을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박순옥 회장님께 한인 역사 보존을 위해 옛날 한인들이 강제동원되었던 탄광, 제지공장 등에 안내게시판을 만들어 보자고 제의했고, 통한의 비·추념 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 KIN이 사할린 한인 특별법 제정을 많이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요?

배 대표: 20대 국회는 2월이 마지막인 상황이라 이번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4월 선거 후 새국회가 열리는 6월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특별법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관심이 높은 국적회복문제도 한인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날을 맞아 동포 여러분께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달력 전달 방문단 일원들의 사할린 방문 소감

김민수 <달오름>극단 대표(오사카)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사는 재일동포 3세 김민수라고 합니다. 재일동포극단 <달오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을 조선학교에 보내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동포들과 일본 사람들과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연극에 담아 공연하고 있습니다. 재일동포의 뿌리와 삶을 다룬 작품이 많구요.

이번에 지구촌동포연대-KIN과 인연을 맺으면서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너무도 몰랐던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전달하기 위해

사할린에 간다는 소식을 들어서 함께 가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7박 8일 한순간처럼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집으로 가야 하는데 안 가고 싶습니다. 떠올려보니 마음 깊은 곳에 사할린의 눈물과 당당함. 보드카와 김치. 내리는 눈과 뜨거운 정이 내 속에 쌓인 듯합니다.

(8면에 계속)

이모저모

모든 것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동 박물관이 아니바를 찾아가다

1월 17일 '아동 발명의 날' 전날 아니와 아곤키 마을의 제3학교로 많은 전시품을 갖춘 이동 디지털 박물관이 찾아갔다. <살아 있는 과학>비영리단체 대표들은 아동들에게 수학과 물리의 법칙에 대해 실례를 보여주며 설명했다고 아니와 지역 행정부가 소식을 전했다. 이동 박물관의 모든 전시품을 관람하기 위해 만져보고, 시도해보며 전시품을 즉시 활용할 수도 있었다.

<살아 있는 과학> 대표들은 흥미로운 과제들과 실험 내용이 담긴 도서들을 도서관에 기증하고 아동들에게는 문제를 풀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대결 과제 세트를 나누어주었다.

상징적으로 아동 발명의 날은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며, 학자, 언론인, 발명가인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탄생일이기도 하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수명을 위해 손에 착용하는 오리발을 12세에 첫 발명했다.

детям анивского села привезли музей, где все можно трогать и открывать

Мобильный интерактивный музей с множеством экспонатов посетил школу №3 анивского села Огоньки накануне, 17 января, в День детских изобрете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КО «Живая наука» на понятных примерах показали и рассказали ребятам о законах физики и математики,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 экскурсии все экспонаты можно было трогать и запускать, чем ребята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и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В библиотек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Живой науки» передали книги с занимательными задачами и опытами. Также детям раздали пакеты конкурсных задач, за решение которых им достанутся призы.

Символично, что датой Дня детских изобретений выбрали день рождения одного из выдающихся американцев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еятеля, дипломата, ученого, изобретателя, журналиста Бенджамина Франклина. Свое первое изобретение — пару ласт для плавания, которые надевались на руки, — Бен Франклин изобрел в возрасте 12 лет.

<러시아 스키 경주> 참가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청

2월 8일 제38회 <러시아 스키 경주> 전 러시아 대규모 오픈 스키 경주가 트로이츠크에 마을 스키 코스 구역에서 열린다. 경기 참가 허락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모든 참가 희망자는 스키 경주에서 자신의 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다. 참가 허락 증명서는 사할린주 의료체조 보건소(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 하바롭스카야 거리 29a), 또는 거주지 종합진료소에서 1월 22일부터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여권과 의료보험증을 지참해야 한다.

경기 참가 등록은 1월23일부터 시작해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서 제출은 다음 주소로 할 수 있다(유즈노사할린스크 고리카야 거리 33, 바이애슬론 스키센터 1층. 접수 시간:15:00-19:00. 또는 트로이츠크에 첼트랄나야 거리 39. 접수 시간: 10:00-17:00시까지). 또한 신청서는 이메일

troitsk_sportscool@mail.ru 로도 제출할 수 있다.

<2020 러시아 스키 경주>에는 사할린 주민 약 1500명 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가자들은 연령별로 4개 구간(200m, 2km, 5km, 10km) 중 한 곳에서 경주를 해야 한다. 경기 개막은 오전 11시 40분에 열리며 첫 출발은 12시에 진행된다고 주 스포츠부가 밝혔다.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Лыжне России"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сахалинцев

XXXVIII Открыта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массовая лыжная гонка "Лыжня России" пройдет 8 феврал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лыжной трассы села Троицкое.

Показать свои силы в лыжной гонке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предоставивший справку о допуске к участию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Е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врачебно-физкультурном диспансере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Хабаровская, 29а, либо в поликлинике по месту прописки начиная с 22 января. С собой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паспорт и страховой полис.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откроется 23 январ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7 февраля.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можно будет по адрес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Горького, 33, лыже-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1 этаж, с 15:00 до 19:00, либо Троицкое, ул. Центральная, 39, с 10:00 до 17:00. Также заявку можно отправить на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troitsk_sportscool@mail.ru.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Лыжне России 2020"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1500 сахалинцев. Им предстоит пробежать одну из четырех дистанци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200 метров, 2, 5 или 10 километров. Открытие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стоится 8 февраля в 11:40, первые старты пройдут в 12:00,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ая пресс-служба.

(7면에 계속)

다채로운 <에트노스>의 음력맞이 행사 - 미스 음력설, 바자회, 공연, 놀이 등

지난 19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문화예술과가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음력설맞이>행사를 펼쳤다. 대강당은 행사를 찾아온 200여 명의 손님들로 흥성거렸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들의 바자회(손수 만든 음식과 과자 등), 민속놀이와 오락, <미스 음력설>공쿠르,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의 핵심은 <미스 음력설>란 경연이었다. <에트노스>학교의 9명의 여학생이 출전해<자기 소개(명함 카드)>, <질의 응답>, <크레아티>, <창의적>단계를 거쳐 다양한 실력을 발휘했다. 이들은 자기 소원, 취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설날 전통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한복 이미지 소개, 댄스, 악기 연

주, 노래 등으로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날 미스 음력설 진으로 박 알리나가 선발되어 관객들의 인기상까지 받았다. 선은 윤옥희 학생이 선발되었고 춘 지아나는 심사위원의 인기상을 받았다.

이날 심사는 <에트노스>학교의 안나 위로호와 교장, 김 엠게니야 교사(무용), 체오 나탈리아 교사(가야금)가 맡았고 설 행사 총감독은 신 율리야 한민족예술과 과장이 맡았다.

공연에는 5-6세의 아이들부터 졸업반 학생들까지 참가해 귀여운 아기 춤, 신나는 풍물, K-팝 춤, 우아한 단소 연주 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신선하고도 흥겹고, 볼거리가 많았던 설맞이 행사였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주 투자정책부, 새로운 선도개발지역 조성에 박차 가해

사할린주에 투자유치 기관이 3월에 설립될 가운데 투자정책부는 사할린 지역 경제가 당면한 대규모 과제들의 수행을 완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비소비재 제부문의 개발, 사할린 식품 수출 증대, 국내외 대규모 사업을 사할린에 유치하는 일이다. 투자정책부는 '하나의 창구'를 원칙으로 작업할 예정이다. 투자부에서는 다른 구도 변경 없이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따라붙어 전체 분석 전망의 서비스를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원리로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나의 비즈니스'센터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투자정책부는 대규모 사업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주지사가 설정한 과제는 지역 총생산량을 매해 4%-6%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대규모 기획들을 시행하며 최적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산업 단지 조성하고 국내외 새로운 시장 개척,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외 투자자들과 협력 확대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라고 사할린주 안톤자이체브 부수상이 강조했다.

경제의 비소비재 부문 중에서는 건축, 물류, 관광, 산림가공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할린의 농산물은 수출 잠재력이 크다. 올해는 의료 클러스터

(cluster:여러 대상의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용하는 집합체) 기획 실현의 일환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의 선두 병원들의 분원이 자리할 데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단지에는 IT클러스터를 비롯해 비즈니스 산실과 건축 산업기술단지 개발에 따른 계획들도 있다.

<사할린 에너지>회사와 공동으로 산업 석유가스단지 건설은 지속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투자정책부는 기존의 선도개발지역 개발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일환의 기획들, 새로이 조성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사할린주 정부의 조직 개편이 시작되었다. 업무 기능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 몇몇 정부 부처들과 기관들을 정리하는 데 대한 대책이 이뤄졌다. 새로 구성된 정부 기관들은 지역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할린에서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정부 구성은 직원 수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더욱 많아진 과제량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핵심 성과 지표로 평가할 예정인데 사할린지역 행정기관의 지도자들의 임금도 핵심 성과 지표에 달려 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청개구리

산속 작업실을 두어 달 빌렸다. 가을 겨울이 빨리 오는 곳이라 시월부터는 창을 닫고 방바닥을 따뜻하게 했다.

외판 집이지만 새벽까지 불을 켜고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온다. 색 다르고 모양 각각인 날벌레들이 수없이 창을 두드렸고 청개구리 한 마리도 밤마다 찾아왔다. 일하다가 고개를 들면 하얀 배와 끝이 둥그란 발가락이 보였다. 손톱으로 유리창을 긁적이면 엉금엉금 기어가는 청개구리를 놀리며 혼자 웃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정 넘어 저녁을 먹다가 청개구리가 안 보인다는 걸 깨달았다. 출도록 쌀쌀한 밤이어서 죽었나 싶어 창을 열었더니 창틀 틈에 개구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크기를 보니 내가 아는 개구리인데 낙엽 닮은 갈개구리가 되어 있었다.

따뜻한 방안에 들어 놓으려 개구리를 붙잡자 손에 오줌을 쏘았다. 그래도 몸이 따뜻해지니 툇 밀을 골골 움직이며 폭자는 것 같았다. 자는 개구리를 두고 나는 고민을 했다.

겨우내 쟁겨울 수도 없는데, 곧 작업실을 비워야 하는데 청개구리를 따뜻한 방 안에 두는 게 맞는 걸까?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내쫓기면 심장마비로 죽지는 않을까?

아침에 내보내고 밤에는 재워주다가 며칠 뒤 짐을 빼서 집으로 돌아왔다. 우편물처럼 쌓여있는 일들을 몰아서 해치우고 한숨 돌리다 빗물 흐르는 창을 보고 청개구리를 떠올렸다. 청개구리는 이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얼음장 같은 창에 붙어서 왜 벌레들이 날아오지 않는지 궁금해 할지 모른다. 어찌면 서리처럼 하얗게 변해 땅바닥에 배를 드러내고 누운 건 아닐까? 이렇게 추운 밤이면 세상 곳곳에서 낙엽처럼 툇 툇 세상을 떠나는 청개구리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

청개구리는 말없이 겨울을 맞는다. 때가 되면 나도 청개구리처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내 겨울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궁금하다.

광주에서 김남중

제23회 <체호브 낭독회> 학술회 개최

올해는 안톤 체호브 탄생 160주년을 맞는다. 1월29일 <사할린섬>체호브 책 박물관은 연례 행사로 '제23회 체호브 낭독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의 해를 맞아 체호브 국제극장과 사할린 인형극장이 행사에 협력한다. 학술대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데 5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본회와 부문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행사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사할린주의 각 지역에서 참가 희망자들의 신청서가 들어왔다.

이와 함께 1월 30일에는 '학교에서 문학적 지역 연구: 체호브에 대한 것만 아니라'라는 주제로 교사들을 위한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참가자들을 위해 유익한 문화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었다. 예술적 만남, 공연 관람, 1월 30일에는 사할린 미술박물관에서 <사할린, 체호브에 대하여> 제 3회 주 창작경연 미술작품 전시회가 개막된다.

학술대회 개막은 1월 29일 체호브센터에서 10시에 열린다.

<체호브 낭독회>는 <사할린 섬> 박물관의 주요 전통행사로서 1998년부터 매해 열린다. 이 학술대회에는 과학, 문화, 교육기관과 문서보관부의 직원들을 비롯해 도서관 직원, 언어학자, 역사학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그간 이 행사의 결과물로 발표 자료들을 모은 모음집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체호브 책 박물관 측이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연례 일본 영화제 열린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 총영사관과 일본재단이 주 문화고문서부의 지원 아래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영화관 '옥차브리'에서 영화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개막식은 1월 31일 18시30분에 열리며 입장은 무료이고 영화 관람표는 영화관 '옥차브리' 매표소에서 배부한다.

대부분의 관람표는 영화 상영 시작 전날 배부되며 나머지 관람표는 상영 당일에 배부된다고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 총영사관 측이 전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нимани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0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ало записи: с 15 января 2020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10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Также всю интересующую Вас
информацию вы можете найти
на сайте нашего «Центра» :
<http://www.sakhalinedu.com>

제 69 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1. 목 적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 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
인 및 재외동포

3. 일 시 : 2020. 4. 12(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30분 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 간(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TOPIK II	1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4. 장소 및 시행처 : 사할린한국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20. 1.9 ~ 2020. 1.30

나. 장소 :

교 부 장 소	주 소	전 화
사할린 한국교육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505696

6. 응시 수수료 : 500루블, 사진 2매 (3*4)

7. 시험결과 발표 : 2020. 5 이후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Сахалинцы получили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ь – 2020»

Уже седьмой год подряд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 Сахалин приезж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Главная цель визит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 вручи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ь».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ь» - это название и лунного календаря, и 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поддерживают тысячи людей из Кореи и Японии. Именно на их пожертвования изготавливается календарь, который так ждут пожилые сахалинцы. В этом году этот проект поддержали почти 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Партнерами проекта на Сахалине являютс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бщество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и областной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В этот раз делегация из шестерых человек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ИН Бе Док Хо и ответственным секретарем Че Сан Гу побывала в Поронайске, Востоке, Смирных, Макарове, Корсакове, Аниве, Холмске, Синегорске, где встретил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естных отделений РООСК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иновцы, прибывшие на Сахалин 15 января,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посетили памятны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еста – гору Грусти в Корсакове и обелиск 27-ми безвинно убиенных корейцев в Пожарском (Мидзухо), привезли горсть родной земли на могилу дедушки Ким Юн Док. Они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овании Нового года «Клубом 60+»,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дальней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ОСК.

Напомним,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ь» - это лунный календарь, где указаны национальные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аздник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народный корейский календарь (сезоны, определенные дл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 Объяснения даются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КИН (KIN – K o r e a n International Network) - это организация содружества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которая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сахалинцами в вопросах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ИН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часто приезжают на Сахалин, ездят по районам и очень много общают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1-го поколения, дабы полнее восстановить картину истории их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Киновц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продвижении спецзакон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в парлам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являются одними из инициаторов созда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узе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Виктория Бя.

«Этнос» отметил «Соль» -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чень ярким и захватывающим получился праздник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прошедший в прошлое воскресенье, 19 января, в стенах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учащимися 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ДШИ «Этнос».

Зал показался слишком мал, чтобы вместить в себя более 200 гостей и около 80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Два часа непрерывного веселья, шуток, игр и ярких динамичных зрелищ подарили всем гостям чудесное настроение, о чем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ли их счастливые и одухотворенные лица.

Для самых маленьких госте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аздника, преподаватели Методи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МБУДО «ДШИ «Этнос», приготовили нестандартные, но очень забавные игры, в которых дети смогли проявить не только свою ловкость, но и смекалку.

Дети более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с интересом наблюдали, сопереживали и «болели» за участниц твор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Мисс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лся впервые, но покорила сердца всех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9 участниц, учащихся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обучающихся по ДООП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боролись за звание, выкладываясь на каждом из 4 этапов конкурса – «Визитная карточка», «Блиц-опрос», «Креатив» и «Творческий».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участницы подошли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ний творчески, креативно. Например, «визитную карточку» некоторые конкурсантки представили в форме видеоролика, где не просто рассказали, а красочно представили себя, свои увлечения и мечту в жизни.

2 тур «Блиц-опрос» -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й конкурс, где участницы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и знания о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ях на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На 3 этапе участницы получили задание – создать новый образ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остюма. За 10 минут каждая из участниц смогла придумать необычную и своеобразную модель, которую пото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жюри и всем гостям.

Игры, конкурсы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яркими концертными номерами учащихся всех возрастов – от 5-6 леток до выпускников.



Но самое необычное в да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было то, что параллельно со всеми действиями работала ярмарк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родителями всех классов МО «КНИ». Столы «ломались» от изобилия и многообразия выпечки, сладостей и других изделий, привлекая всех любителей «полакомиться». Это придало празднику формат настоящего гуляния, перенесённого через время и расстояние, сообщили в ДШИ «Этнос».

Фото: Ли Е Си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 Сан Мин: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оездки в КНДР относятся к категории суверенных вопросов РК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относится к суверенным вопросам РК. Об этом 17 января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Ли Сан Мин, комментируя недавнее заявление посла США в Сеуле Гарри Харриса, в котором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случае продвижения проекта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оездок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в КНДР, Сеул должен заранее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 Вашингтоном. По словам Ли Сан Мина, да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может быть реализована с согласия Пхеньяна.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туризм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вопросе расшир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бменов на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Важно то, согласится ли Пхеньян работать в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этом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учитываю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его отношение.

В выходные дни по случа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будет открыт свободный доступ к культурным объектам

В выходные, по случа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РК будет открыт бесплатный доступ к ряду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Это королевские дворцы Кёнбоккун, Чхандоккун, Чхангёнгун и Токсугун, святилище Чонмё, где хранятся поминальные дощечки членов королевской семьи, и королевские гробницы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охр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 этот период дворцы будут открыты все выходные дни, в том числе в понедельник, когда обычно данные объекты не работают. Между те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ворцов готовятся раз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том числе выставки, народные гуляния и другие.

Работающие корейцы потратят на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коло 430 долларов

На празднование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работающие южнокорейцы, как ожидается, потратят 502 тыс. вон или 430 долларов.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одившегося с 15 по 18 января среди 930 человек компанией по непрерывном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част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Nupet. Нынешний показатель на 40 долларов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реди женатых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метка составила 480 долларов, а среди неженатых - 335 долларов.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таких расходов пришлась на денежные подарки родителям и другим близки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 54,7%. Далее следуют покупка подарков, расходы на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путешествие,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Главной заботой в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является посещение малой родины и старш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Такой ответ дали 38,8% респондентов. Далее в списке намеченных дел отдых дома – 25,2%, культурные развлечения – 17,7%, путешествия – 10,8%, работа – 6,1%. Между тем, в этот раз работающие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будут отдыхать в среднем 3-4 дня, что на сутки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40%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ветили, что в их компаниях не будет праздничных бонусов.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Азии и в США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KCON), проводимый продюсерской компанией CJ ENM,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странах Азии и в США. 17 января в компании сообщили, что в апреле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ится в Токио, в июне в Нью-Йорке, в августе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в сентябре в Бангкоке. В рамках KCON планируется познакомить иностранцев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через различные контенты, в том числе концерты K-POP, показы кулинарии, выставки косметики, моды, сериалов и други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кзамен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дал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сдавших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й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ОPIK), составило 375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о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7 янва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институте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сег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кзамен проводился шесть раз.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8 годом количество экзаменующихся выросло на 14,2%. Впервые экзамен проводился в 1997 году. Тогда его сдавали 2.692 человека. Накопле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 тех пор составил 2 млн 541 тыс. 413 человек. (RKI)

В руководстве КНДР сменили кураторо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 высшем партийном руководстве КНДР произошли масштаб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ходе которых сменили почти половину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я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ТПК). При этом сильно обновилась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линия. Так, ушел в отставку куратор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по партийной линии Ли Су Ён, а также, скорее всего, сменился и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Ли Ён Хо.

О том, что в КНДР были произведены круп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артийном руководстве, стало понятно еще по итогам 5-го Пленума ЦК ТПК 7-го созыва, который завершился 31 декабря. Тогда официальные СМИ КНДР сообщили о многих кадровых назначениях, но зачастую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неполной. В этой связи эксперты по КНДР продолжили отслежив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официальную хронику, пытаясь выудить крупницы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бы составить полную "мозаику" обновленного высшего партийного эшелона Страны чучхе.

В итоге этот шанс иностранные наблюдатели получили, когда СМИ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ла список тех, кт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прощания с одним из ветеранов и соратники еще Ким Ир Сена по борьбе с японскими колонизаторами Хван Сун Хи. Эта женщина в возрасте 100 лет скончалась на днях, а 17 января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ось прощание с ней. Хван была супругой бывшего командира 105-й танковой дивизии КНДР Рю Гён Су, которая первой вошла в Сеул в июне 1950 года в первые же дн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о информации экспертов, в свое время свадьбе Рю и Хван активно содействовали дед нынешнего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Ир Сен и его жена Ким Чжон Сук, а потому Ким Чен Ын лично прибыл на церемонию прощания, которая прошла с максимальными почестями.

Список участников этой церемонии прощания и дал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лить свет на перестановки.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изменений - отсутствие на церемонии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отставка сразу пяти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я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Учитывая, что "замов" всего 12, то обновили почти половину помощников Ким Чен Ына по линии ЦК ТПК. Если называть конкретные имена, то в отставку отправлены следующие, теперь уже бывшие, заместите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ЦК ТПК: Пак Гван Хо, Ли Су Ён, Ким Пхён Хэ, Тхэ Чжон Су и Ан Чжон Су. Эта пятерка также отсутствовала на общей фотографии Ким Чен Ына с участниками Пленума партии 31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а теперь практически точно подтверждено, что эти чиновники смещены со своих пост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здесь привлекла замена Ли Су Ёна, который до сих пор был главным партийным кураторо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НДР. Как считаю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скорее всего, Ли отправили на пенсию, так как в этом году ему исполняется 85 лет, а 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перешли к бывшему послу КНДР в России Ким Хён Чжуну. Последний по итогам Пленума получил значительное повышение, став кандидатом в члены Политбюро ЦК ТПК. Правда, замена не совсем равнозначная. До сих пор Ли Су Ён в общей иерархии власти КНДР ставили по влиянию на 7-8 место, а Ким Хён Чжун пока находится на 19 месте. Впрочем, возможно, резкий взлет бывшего посла КНДР в России продолжится.

Все это совпало с сообщением англоязычного портала NK News, которое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новостях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 произведенной также смене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Как утверждает издание, ссылаясь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источники, глав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Ли Ён Хо отправлен в отставку, а на его место назначен Ри Сон Гвон, который до этого отвечал з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Пхеньяна. Официально о перестановке пока не заявлено, но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удастся окончательно подтвердить 23 января, когда должно состояться круп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работающих в Пхеньяне иностранных дипломатов, и должен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Отметим, что Ли Ён Хо также отсутствовал на общей фотографии с Ким Чен Ыном по итогам Пленума партии. Это дало повод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возможно, Ли Ён Хо смеще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если этот анализ и сообщения верны, 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н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НДР произошли серьез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Поменялись, как минимум, две самые важные фигуры - зампреда ЦК ТПК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и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нтересно, что это совпало с информацие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которые заметили, что послы КНДР в ООН и Китае, а также еще несколько других посло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ружно вылетели в Пхеньян. Японская телерадиовещательная компания NHK со ссылкой на посла КНДР в Анголе, который тоже был среди тех, кто вылетел на родину, сообщила, что послы "намерен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вещании по обсуждению вопросо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се это подлило масла в огонь спекуляциям на тему о возможности серьезных перемен в дипломатии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курсе КНД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Инвестиции в фондовый рынок России признаны в Корее самыми прибыльными

Инвестиции в российский фондовый рынок показали самую высокую доходность по итогам 2019 года, превысив 35 процентов. Таковы итоги показател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злич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которые вкладывали средства в ценные бумаги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ов. Следиом по прибылям идут инвестиции в фондовый рынок Китая и стран АТР.

Как отмечает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Дэйлиан", которое ссылается на итоговую статистику результатов за 2019 год, по вложениям в фондовые рынки двадцати стран и регионов мира в среднем инвести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в российский фондовый рынок за год показали уровень дохода в 35,33 процента. Наиболее удачным компаниям удалось заработать более 48 процентов.

Второе место по прибыльности заняли инвестиции в фондовый рынок Китая - 31,48 процента, на третьем - вложения в паев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фонды (ПИФ)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 27,83 процента. Среди лидеров по прибыльности также значатся индийские и китайские ПИФы - 27,45,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ие - 26,77 и ПИФы "новых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 Европы" - 25,36 процента.

Комментируя перспективы инвестиций в фондовый рынок РФ,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ценные бумаги России по-прежнему демонстрируют очень хорошие показатели и являются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объектами для вложений. Так,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месяца прибыльность российских ПИФов составила 16,75 процента, а за прошедший месяц - 8,32 процента. Специалисты, впрочем, отмечают, что динамика изменений котировок на фондовой бирже РФ подвержена сильным колебаниям, посоветовав внимательно отслеживать мировые цены на нефть и другие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от которых Россия сильно зависи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Р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0 году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переселят в 2,5 раза больше семей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остоявшейся 20 января, прозвучал квартирный вопрос. В 2019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расселили 49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в 17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Новосель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960 семей.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высить планку. Будет расселено 126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2,4 тысячи семей.

Также была затронута проблема высокой стоимости жилплощади на островах. По мн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низить цену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жилья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ение темпов и объем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Максимально важно, чтобы у людей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улучшать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а не годами ютиться на съемных квартирах или вместе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Для этого мы будем наращивать строительные показатели.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этого много. Будем расширять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ипоте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риглашать в область крупных застройщиков, создавать 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бинат,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Еще один способ снижения затра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 формирование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Это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серьезный запас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а не завози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каждый раз с материка. Сейчас нередко в случае непогоды происходят задержки при возведении жилых домов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Отметим, что в 2019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вели 31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 это на 20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результатов 2018-го. План на этот год — 430 «квадратов». Далее, начиная с 2021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должны сдавать по 500 тысяч ежегодно.

Также напомним, что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Минобороны РФ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передаче неиспользуемых земель военных — 38 участков и более 12 тысяч гектаров. Эти земли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ых домов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Первые семь площадок уже переданы региону.

200 тысяч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нут обладателями социальных карт к 2021 году

Специальные электронные карты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скидку до 10 процентов в магазинах и аптеках. Об этой и других мерах по повышению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вое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 Социальная карта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продукты, бытовую химию, аптечные товары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Этот проект мы запустили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ля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Теперь мы собираемся расширить эту инициативу, чтобы оказывать адресную поддержку всем, кто в этом нуждается,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еняются и другие методы по снижению стоимости продуктовой корзины. Расширяется сеть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где торговая наценка не превышает 15 процентов. Развивается фирменная торговля продукцией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ярмарочный формат. Кроме того, в планах есть пригласить на острова крупные сети с известными бренда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через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магазины буд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четверть продукц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удет активизирована работа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контракту.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губернатор также сообщил, что минимальная выплата в этом году увеличится с 5 до 10 тысяч рублей. Максимально эта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подразумевает до 20 тысяч рублей ежемесячно или 240 тысяч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помощью этих выплат людям,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сь в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удастся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открыть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или другим способом улучшить св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Все эти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ризваны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а этот год стоит амбициозная задача — снизить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до рекордных 3,5 процентов. Отметим, что за 2019 год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улучшили 25 тысяч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сократился вдвое — 9,7 до 4,3 процент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уделяют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е семей с детьми,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Более 200 различ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получают около 180 тысяч жителе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виакомпанию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ледует создать на базе «Авроры»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казал журналистам во врем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Нов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станет крупнейшей в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О ее создании ранее сообщали в Росавиации.

— Если «Авроре» дать эту задачу, уверен, она с ней справится. Считаю, что авиакомпания достойная и сможет показат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работы,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о планах по развитию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овый комплекс сдадут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2021 году.

— Мы хотим сделать наш аэропорт самым главны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з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острова могут совершаться рейсы на расстоянии до 8 километров. Это Корея, Китай, Япония, Америка. Что касается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 это Моск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очи и другие,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 Аэропортом должна заниматься большая сетевая компания, мощная, с серьезными ресурсами. Мы сейчас ищем такого партнера. Объявлен конкурс, его итоги мы подведем в середине года. Компания, которую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создать, должна бы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й.

Также,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губернатор сообщил о субсидирован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едавно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добились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 13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его реализацию направят из бюджета страны, еще 1 миллиард —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Напомним, новый терминал возводитс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амых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чиная от системы умного контроля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линиями досмотра пассажиров и багажа и заканчивая регистрацией и обслуживанием вылетающих и прилетающих.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ассажиры не будут терять время при оформлении проезд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осадке в самолет и высадке из него, а также при получении багажа.

Площадь нового аэровокзала составляет 4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Для сравнения — нынешняя воздушная гавань в пять раз меньше.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комплекса увеличится в пять раз — до 5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в год.

До конца 2020 года все поликли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жны стать доступными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общил во врем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которые не избавятся от очередей, будут приняты кадровые решения вплоть до увольнен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лись перв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без очередей — они получили статус «Доступ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Вскоре такими должны стать все. Это значит — попасть к терапевту пациент сможет за 2 дня,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прием у врача узкой специализации —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Особую роль в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й работы отводим «серебряным волонтерам» и пациентам, которые оставляют свои отзывы о поликлиниках по номеру «1-300»,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атус доступных уже получили областная кожно-венер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Ногликская ЦРБ,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и поликлиники № 2 и № 4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ЦРБ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Южно-Курильске,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е Смирных, Аниве, Томари и Холмске.

Такж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помнил, что за год в области проделал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улучш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 регион привлекли около 300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врачей, закупил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У людей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сообщать о недостатках в работе медучреждений через обратную связь — «1-300», «Окна доверия». Помощь пациентам оказывают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Сахалинскую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рограмму рассмотрят в Москве

10 феврал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тавит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финансов России, а в марте —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О масштаб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ах губернатор рассказал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обеспечить рост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на 6-7 процентов в год.

— С такой скоростью сегодня движется кита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И мы должны равняться на лучши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еще более плот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бизнесом, обеспечивать приток инвестиций в регион, содействовать в создании новых современных и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медицинского кластера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технопарк, где разместятся филиалы ведущих клиник России и стран Азии. На его базе также собираются создать IT-кластер. Продолжится создание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парка совместно с компанией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 Мы хотим, чтобы не в Пусане, а на Сахалине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хранили рыбу. Это задача, сравнимая с развитием нефтегазового сектора, и мы сегодня над ней работаем, — добав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Еще один амбициозный проект — создание большого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который будет служить точкой

разворота для ледовых судов на Северном морском пути. Это кратчайший путь между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ью России и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Сегодня по этому проекту готовят техническое задание и бизнес-план.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выражают крупнейшие компании — к примеру, финансовая госкорпорация «Дело».

Совместно с крупнейшей девелоперской компанией России «ПиК»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вать технопарк строительной индустрии. Цель этого проекта — развитие модульного домостроения. Из модулей, произведенных на заводе, будут собираться жилые дома и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Это позволит снизить стоимость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и возводить объекты круглогодично.

Север Сахали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создания лесотехнического кластера. Сейчас там занимаются изучением пород деревьев, в перспективе производить из них CLT-панели. Этот прочный качественный и натуральный материал хорошо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в домостроении.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 рассказал, что госкорпорация «Росатом» планирует выделить 5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островной системы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Есть проек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мусоросжигательных заводов,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и друг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азвитию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 всем сахалинским семьям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енца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озв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вое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роме того, до 250 тысяч рублей увеличивается региональная выплата при появлении на свет второго малыша.

Ране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лучали только женщины, которые родил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25 лет.

— Мы убираем это возраст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Семье, которая отпраздновала пополнение, никогда не помешает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своем Послан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сказа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сширять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 напомн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умма федерального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так ж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региональную выплату вдобавок к федеральной.

С этого года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466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 появлении на свет второго малыша — 616 тысяч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 увеличить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Семьи, где родился второй ребенок, будут получать 250 тысяч рублей (ранее выплата составляла чуть более 200 тысяч). Напомним, что действие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маткапитала продлили до 2026 года. Действ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будет также продлено до 2026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оказывается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на погашение ипотечного кредита. Он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займы от Сахалинского ипотеч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ри появлении на свет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сумма долга уменьшается на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второго —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третье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ак рассказал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губернатор, эту практику собираю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на коммерческие банк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смогут семьи, которые живу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е менее 10 лет и которы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рождение малыша после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Сахалинцам компенсируют полную стоимость перевода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газ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общил во время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же при покупке машин на голубом топливе островитяне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региональную льготу по автокредиту или лизингу.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овыми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смогут уже в этом году.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ют дилерские центры. Компании предлагают соб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лояльности. Например, предоставляют островитянам скидки при утилизации старого авто и покупке машины на газе — до 100 тысяч рублей.

Участники совещания оценили преимущества перевода авто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Им предложил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анонимному голосованию.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добрили 74% собравшихся.

Напомним,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ют сеть газовых заправок. Та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ткроют вторую стационарную станцию — на пересечении улиц Пуркаева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обустраивают подобные заправочные комплексы в Поронайске, Тымовском и Ногликах. Передвижные заправщики заработают в Невельске, Холмске, Долинске, Аниве, Макарове, Смирных и Охе. Ранее передвижной комплекс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в Корсаков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시선]사할린 한인의 간절함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사할린. 인천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러시아 영토의 섬. 태평양을 바라보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이 섬은 남쪽으로 일본 홋카이도, 북쪽으로 러시아 본토와 마주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의 슬픈 역사가 새겨진 섬이다. 일제강점기로 거슬러간다. 당시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은 일본의 영토였다. 전쟁시기 일본은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수만 명의 식민지 조선인을 남사할린 탄광으로 강제 징용 보냈다. 마을마다 할당된 징용 몫을 채우기 위해서 만형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신 징용길에 올랐고,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은 남편 혼자 보낼 수 없어 보파리를 싸 뒤를 따랐다.

사할린에 보낼 때는 일본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섬을 소련에 넘겨주면서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겨졌다. 귀향선에 조선인은 탈 수 없었다. 남겨진 조선인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 믿으며 사할린 섬의 남쪽 끝 항구도시 코르사코프로 모여들었다. 매일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망향의 언덕에 올라 고향으로 가는 배를 기다렸다. 하지만 냉전의 장벽은 멀지 않은 뱃길마저 가로막았고 해방 후 혼란했던 고국은 이들을 외면했다.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韓人)들은 수십 년 동안 망향의 그리움을 담고 동토의 땅에서 살아남았다.

1990년에 이르러 한국과 소련이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비로소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사할린 한인의 귀국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오랜 시간 동안 버림받았던 이들의 복잡한 삶을 담기엔 지금의 법과 제도는 너무 엉성하거나 무책임하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인생을 조국인 대한민국의 공문서에 사실대로 기록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2014년 무국적자로 살아온 사할린 한인2세에게 처음부터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결했지만, 지금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 공백으로 인해 한국인으로 기록되지 못한 동포와 그들의 자녀들이 많다. 사할린 한인의 삶과 이들의 가족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게다가 최근에 고국으로 영주 귀국한 어르신이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이 우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해 친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사망신고를 비롯한 고인의 장례절차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남겨진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대부분 고령임을 고려할 때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황 ‘재외국민 가족관계 특례법’의 가족관계등록 요건을 체류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완화하거나, 법무부 자체적으로 사할린 한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처리를 위한 별도 행정지침을 마련하는 것 등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다른 욕심 없다. 죽기 전에 내가 한국사람이고, 죽은 남편과 남은 자식이 내 가족이라고 적힌 호적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올해 아흔셋 어르신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경향신문, 2020.01.19)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말로 깨달다]

잠을 청(請)하다

잠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들기도 하고,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잠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가장 심한 고문 중에 잠을 안 채우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잠을 수 없을 겁니다. 잠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찾아오는 잠, 그리고 회의시간에 스며드는 잠은 참 괴롭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는 수수께끼도 있습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든 게 잠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주변의 상황이 잠을 이기게도 합니다. 급한 일이 있거나 해결해야 할 일,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잠을 이겨내고, 잠과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잠이 많던 사람이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사실 저는 밤은 잘 못 새웁니다. 혹시라도 밤을 새면 며칠 동안 크게 고생을 합니다. 자는 리듬이 깨지면 다른 곳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미리 서둘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것도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지는 못 자 본 사람은 다 압니다. 불면증은 다른 병을 부르기도 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서 스스로를 가라앉게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뛰기도 하죠. 한없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서점에 가면 불면증에 관한 책이 많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불면증을 이기는 방법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효과가 적습니다.

불면증에는 밤에 아예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도 있

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이에 따라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로 나이가 많아지면 새벽에 일찍 깹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저녁에는 비교적 일찍 자는 편입니다. 새벽 기도나 새벽 공양에 할머니들이 많은 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가 새벽에 기도를 한다면 대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아침형 인간까지는 괜찮은데 '새벽형' 인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새벽은 고민의 시간이고, 깨달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새벽 여명(黎明)의 빛을 맞으며 수행을 하는 이유일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말에서는 잠이 안 오면 부탁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청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잠에게도 부탁이 필요한 겁니다. '청(請)'은 우리말에서 독특하게 쓰입니다. 한자어임에도 자연스럽게 여러 장소에서 사용됩니다. '청이 하나 있다, 청을 들어 달라, 청을 거절하다' 등에서 독립적으로 쓰입니다. 물론 '청하다'처럼 '하다'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청은 부탁하다는 의미입니다. '청탁(請託)'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도 나쁜 말이 아닌데, 뇌물이야기에 많이 나오다 보니 나쁜 말처럼 여겨집니다. 검은 것 옆에서 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청탁(原稿請託)에서는 나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부탁이라는 뜻입니다.

잠을 자야 생각이 정리되고, 심장이 제 속도로 가고, 머리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자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잠을 청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잠에게 부탁을 할 때는 자신도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우선 약속을 줄이고, 술을 줄이고, 생활을 조금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연습도 잠을 청하는 좋은 자세입니다. 잠을 부탁하는 나의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좋은 생각을 하고, 고마운 일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잠을 청하는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은 잠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 '편히 주무십시오.'라는 우리 인사말이 참 좋네요. 오늘 밤 잠을 청해 보세요. 그리고 편히 주무세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전국 역사 십자말 풀이> 행사에 참가 예정

1월 25일 러시아 전 지역에서 진행할 <전국 역사 십자말풀이> 행사에 주 일반과학 도서관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과 방문객들의 참가를 촉구한다. 행사의 아이디어는 모스크바 국립교육대학이 창안했는데 십자말풀이의 목적은 성인을 비롯해 대학생과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끄는 데 있다. 참가자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술이 기록과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하는 질문과 문제에 대답을 해야 한다. 십자말풀이를 풀기 위해서는 깊은 역사적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학교 학생 교육과정 정도나 열정과 논리적 사고력이면 충분하다. 행사 시작은 12시 30분에 시작한다. 참가 전 등록은 전화 (+7(4242) 45-25-27)로.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кроссворд"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риглашают в областную универсальную научную библиотек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кроссворд", которая пройдёт по всей стране 25 января.

Идея акции принадлежит Московско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педагогическому университету. Цель кроссворда — поддержать интерес к истории у школьников, студентов и взрослых.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и задания,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т ли их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б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подтвержден-

ным фактам и документам. Для решения кроссворда не требуется глубок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знаний, достаточно шко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азарта, умения мыслить логически.

Начало акции в 12.30.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5-25-27,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115 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무료 검진 이후 초기 폐종양 발견

저용량 컴퓨터 단층촬영의 방법으로 폐암 발견에 따른 사할린의 기획이 국내에서 우수 기획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았다. 사할린 주민 3000명 이상이 이 검진을 받았는데 그중 115명에게서 초기 악성 폐종양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성공적 치료의 중요한 요건은 제때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사할린에서는 현재 저용량 영상단층촬영을 7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은 검진 상담센터에서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의료 전문가들은 휴일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검진이 아직 실시되지 못하는 지방의 주민들도 무료로 폐 영상단층촬영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주치의에게서 진단서를 받거나 <1-300> 대기번호에 등록돼야 한다.

"우리는 <위험군>에 속하는 기준을 작성했다. 여기에 속하는 환자들은 55세 이상이며 이들의 흡연 경력은 15년 이상이었고 환자들의 친인척 중 폐암을 앓았던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주 검진 상담센터의 드미트리 프세가르스키 방사선 진단센터장이 설명했다.

검진 절차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며 이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사할린주에는 이에 더해 몇 개 유형의 영상단층촬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할린에 재료 및 기술기반을 개선하고 인재들을 유치할 예정이다.

115 сахалинцев узнали про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в легких после бесплат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ект по выявлению рака легких методом низкодозовой компьютерной томографии признали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в стране. Обследование прошли свыше трех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у 115 обнаружены подозрения на злокачественные новообразования. Главный залог успешного лечения — обратиться к медикам своевременно, подчеркив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Низкодозовую томографию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делают семь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цы, например, смогут ее пройти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нимают по выходным — с 8 утра до 6 часов вечера.

Попасть на бесплатный скрининг могут и жители т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где пока не проводятся подоб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о для начала нужно получить направление у лечащего врача или записаться по номеру «1-300».

— Мы разработали критерии включения в «группу риска». Туда вошли пациенты старше 55 лет, пациенты, чей стаж курения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15 лет, и пациенты, ближайш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которых больны раком легкого, — сказал заведующий центром лучевой диагностики областного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Дмитрий Пшекарский.

Процедура длится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но именно она поможет спасти жизнь.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планируют ввести еще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скрининга. На острове для этого совершенствуют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ую базу и привлекают кадры.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전하려고 사할린에 왔습니다

달력 전달 방문단 일원들의 사할린 방문 소감

(2면의 계속)

처음 만났음에도 반겨주는 해맑은 미소와 뜨거운 포옹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망향의 언덕에서 고향으로의 길을 애타게 찾으신 그 마음이 저한테는 일본에서 고향을 그리며 돌아가신 1세 할아버님 할머니들의 모습과 겹쳐 있습니다.

사할린에서 받은 많은 정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작품으로 답례를 하려 합니다.

연극 작품으로 사할린의 이야기와 제가 본 것들을 정성껏 전하려 합니다.

사할린과 일본, 세계에 흠어진 동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이어나가려 합니다.

다시 꼭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김도희 <이스크라21> 팀장



부산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 프로덕션 <이스크라21>의 김도희입니다.일본, 중국, 우수리 이스크, 독일에 계신 동포분들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 영상기록을 하면서 동포들의 삶이 각 나라의 상황과 그 나라에 가시게 된 이유들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그 애환과 아픔들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포 어르신들도 만나고, 한인회 분들도 여러 지역에서 만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망향의 언덕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할린 각 지역에서 항구로 모였던 동포

분들의 모습이 눈 앞에 보이는 듯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크라21에서 재일동포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할린에 와서 동포분들을 만나보니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자주 와서 기록을 했던 영상들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구태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팀장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구촌동포연대 (킨) 운영위원 구태희(끼릴)입니다. 작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부산에서 사할

린을 오고 갑니다. 매년 오는 사할린이지만 올 때 마다 다른 느낌과 고민을 가져 갑니다. 우리의 역사를, 문화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 앞으로 3~4세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뵈 그날까지 평안 하시길 바랍니다.

김지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전달하러 6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1세 어르신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동포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 곳 마다 환대해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또 만납시다!

안산에 계시는 성점모 선생님께 드리는 축하문

구순을 맞이 하시는 성점모 선생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신문사에서 약 25년간 근무하셨습니다. 부주필, 주필(사장)으로 열심히 활약하셨으며 러한 수교전 1988년에 한국을 처음 다녀오시고 민족 정체성, 사할린 동포 단체들의 활동,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 등에 초점을 두시고 독자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동포 언론인으로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선생님, 모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즐기시며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하고 손주들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БОЛЕЕ 100 ЗАКАЗОВ



Нашим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ам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ОЧЕМУ С НАМИ УДОБНО?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Заказы запоминаются, их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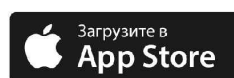
ПОПРОБУЙТЕ

НА САЙТЕ eda.sakh.com

Десктопная версия

Мобильная версия

ИЩИТЕ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